

2 종합

수업일수 16주에서 15주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이번 학기부터 수업일수가 기존 16주에서 15주로 변경된다. 15주차는 수업 일정상 발생하는 휴강을 대체하기 위한 보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강이 없다면 기말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말고사는 16주 차에 시행하게 된다.

학사지원팀은 “강의 기간 중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이 발생할 경우, 15주 차를 보강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휴강이 없다면 15주 차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이를 기말시험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16주 차에 기말고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좌별로 수업일수가 달랐던 것을 통일하고, 주요 대학이 수업일수를 15주로 운영하는 점, 교강사 수급 측면을 고려했다”며 수업일수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학기까지는 교강사 재량에 따라 수업일수 계획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사지원팀은 “장기적으로 15주 수업 편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이번 학기 강의 커리큘럼을 16주로 계획한 수업의 경우에는 교강사 재량에 따라 수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수들 사이에서 이번 학기 수업 계획에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조영욱(생리학) 교수는 “기존에 해오던 강의 계획처럼 16주에 맞췄다”며 “15주 차 보강 여부는 나중에 학생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보성(경영학) 교수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15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수업일수 변경 관련 교강사 의견은 다양했다. 조 교수는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교양강의의 경우 수강 학생 학과가 다양해 보강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15주차에 보강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효율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열(화학) 교수는 “형식적인 수업일수를 채우는 것보다 15주 동안 알차게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변경 수업일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안지연(국제학) 교수는 “개편 취지는 공감하지만 많은 수업이 15주차에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창용(응용수학) 교수는 “중요한 것은 학칙 제10조에 의거, 15주 이상의 강의를 하느냐의 여부인 것 같다”며 “세부 운영은 강좌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우리학교는 학칙 제10조에 따르면 수업일수에 관해 “매 학년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생들도 수업일수 변경에 관해 여러 의견을 전했다. 황가희(정치외교학 2024) 씨는 “보강 주간에 보강돼 무리한 수업 진행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다린(무역학 2024) 씨는 “작년에는 수강생 각자의 일정으로 온라인으로 보강을 들었는데, 온라인 수업은 대면보다 확연히 집중도가 떨어지고,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며 “보강 강의를 대면으로 진행할 여유를 두어 수업내용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14년 만에 강의료 인상
주요 사립대학 내 중위권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우리학교 강사 강의료가 인상된다. 강의료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시간당 5만 1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약 17.6% 인상됐다. 이는 서울 주요 사립대학 중 중위권 수준이다.

우리학교 강사 강의료는 5만 1천 원으로, 10년 이상 동결됐다. 주요 사립대학 사이에서 최하위권 수준이었다. 우리신문은 이전에도 해당 사안을 여러 차례 짚어본 바 있다. (강사 5년간 63% 늘었지만 채우는 제자리걸음/대학주보 1720호/2024.04.01, 평균 강사 강의료 제자리/대학주보 1691호/2022.10.12)

대학알리미 공식 자료에 따른 1인당 평균 강의료를 봤을 때, 우리학교 1인당 평균 강의료(6만 원)는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 중 중위권에 속했다. 대학별 1인당 평균 강의료는 ▲성균관대 6만 9천 원 ▲중앙대 6만 6834원 ▲연세대 6만 6166원 ▲서강대 6만 161원 ▲고려대 5만 8832원 ▲홍익대 5만 6914원 ▲동국대 5만 6143원 ▲한양대 5만 3747원 ▲건국대 5만 3609원 ▲한국외대 5만 1275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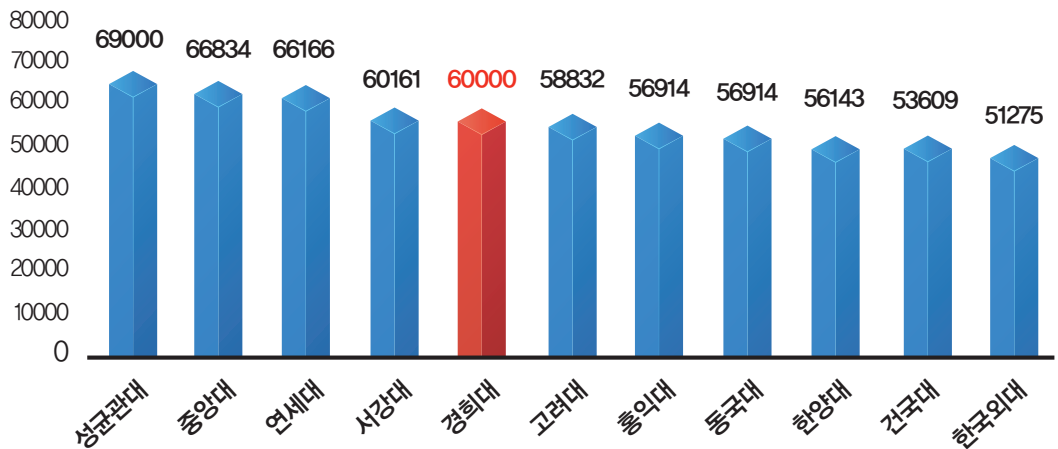
우리학교 A 강사는 “강의료 5만 1천 원 기간이 길었는데, 타 대학에 비해 강의료가 낮은 수준이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6만 원으로 인상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박중렬 위원장은 인상된 6만 원 역시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인상된 금액인 6만 원은 사립대학 중에선 중간 수준이지만, 하루 6시간 근무로 1년 연봉

을 계산하면 1080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기업 직장 생활에 비해 25~35% 수준”이라며 “방학이 시작될 때와 끝날 때 1주씩 더 근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1230만 원에 불과해 매우 적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수당이나 보험 적용이 어렵고 연봉 상승 역시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워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의료 상승은 등록금 인상과는 무관하게 이뤄졌다. 예산팀 윤필영 과장은 “주요 대학에 비해 강의료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속 인상을 검토해 왔다”며 “등록금 인상과 시기가 겹쳐 오해를 살 수 있지만,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과장은 강의료 상승률에 대해 “타 대학 강의료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1인당 평균 강의료 (단위: 원)



대학주보



대학주보 카카오톡채널이 생성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고 경희대학교소식 받아보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 QR코드 스캔 → 채널 추가

kakaotalk

